

연장된 인간, 연장된 문제: 팬데믹 시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장된 인간의 문제

박일준*

I. 머리말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영위하며, 우리의 연장된 실존을 체험하고 있다. 인간이 기술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를 연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Homo Deus)라고 정의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풍경을 서술한다. 하지만 이렇게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인간 몸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를 하라리는 마냥 긍정적으로 낙관하지만은 않는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란 곧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비존재로 내몰리면서, 현재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불평등”을 그만큼 “업그레이드”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Harari, 2015, 346). 인간연장의 시대는 인간이 당면한 어려움들과

*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객원교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동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팬더믹으로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 보그적 삶을 살아가게 된 시대에, 이 디지털 연장이 초래할 문제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본고는 첨단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한 미디어들의 활용을 통해 인간이 생물학적 경계를 넘어 연장되는 시대를 맥루한과 클라크의 관점들을 통하여 다루어보고, 이로 인해 초래될 문제들을 프랑코 베라르디와 맥루한의 서술들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프랑코 베라르디는 감성(sensitivity)과 감수성(sensibility)의 분극화를 염려하면서, 이 분극화가 타자들과 다른 존재들에 대한 공감능력의 결여를 초래하고, 아울러 기호자본주의적 체제 아래서 탈진과 무능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그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테러리즘과 증오 및 혐오 범죄 그리고 문자마 폭행 등의 분노로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염려스럽게 바라본다. 베라르디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의 만남이 공감의 토대를 상실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맥루한은 인간의 중추신경계가 디지털 네트워크와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연장되는 시대에 이런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중추신경계가 ‘자가절단’(autoamputation)을 시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자가절단은 존재의 연장(extension)을 새롭게 분할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대 그들의 이분법적 사유의 틀 안에서 조망될 경우, 자신의 연장을 타자적 존재로 간주하고, 인간의 자기소외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분량의 한계와 동시에 창조성의 빈약함으로 인해—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극복해 나아갈 대안적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것이다.

II. 본론

데카르트는 존재를 실체론적으로 구별하여 사유(thought)와 연장(extension)의 두 실체로 이분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마음과 몸을 이분법적으로 다른 실체로 제시했지만, 팬더믹 시대 우리는 인간이 연장되는 시대 그래서 연장된 마음에서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하자면 사유와 연장은 데카르트의 생각처럼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닌 것이다. 데카르트는 ‘연장된 것’(res extensa, extended thing)에서 ‘것’(thing)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앤디 클라크와 마샬 맥루한은 ‘연장’(extension)에 초점을 두고, 이 연장이 마음과 결합(coupling)하여 연장된 마음의 인지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를 맥루한은 인간의 연장(extension of man)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이고, 이 인공적 도구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활동을 연장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앤디 클라크는 도구적 인간(homo faber)의 의미를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natural-born cyborg)로 규정한다(Clark, 2003, 3). 이는 인간이 몸을 매개로 인공도구와 장치들을 통해 연장하는 특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몸을 매개로 외부로 연장되어, 인공도구들이나 장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인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클라크는 ‘연장된 정신’(the extended mind)으로 표현하였고, 마샬 맥루한은 인간의 연장으로 이해한다. 맥루한이 미디어를 인간의 연장으로 규정할 때, 이는 미디어라는 말이 본래 ‘매체’ 혹은 ‘매개체’(medium)라는 말의 복수형으로서, 사물과 존재를 매개하고 연결하는 특성을 본성으로 하며, 인간의 몸도 이러한 연장적 특성에서 미디어의 한 종류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존재라는 실체를 사유와 연장으로 구별하고, 이 연장선 상에서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정초했던 데카르트적 관점의 전복을 의미한다. 즉 존재는 사유와 연장의 두 실체로 구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extension)은 마음과 몸을 그리고 세계를 접속(coupling)시켜,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그를 통해 이 전과는 다른

토대 위에서 마음을 작동시키면서, 존재는 데카르트가 상상했듯이 일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일원론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전자 미디어 시대의 연장된 몸: 맥루한의 몸의 연장으로서 미디어

마셜 맥루한은 미디어를 “인간의 연장”(the extension of man)으로 규정한다(McLuhan, 2011). 말하자면 미디어는 “인간의 육체나 정신이 [연장!]된 것”으로서, 그의 예를 인용하면, “옷은 피부를, 집은 인간 신체의 체온 조절 기계를 [연장]한 것이다(McLuhan, 2011, xix). 다시 말해서, 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우리 몸의 감각-미디어가 [연장]한 바로 그 감각-을 사용하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주체”이다(McLuhan, 2011, xxi). 여기서 맥루한이 말하는 ‘미디어’는 방송통신분야를 지칭하는 ‘미디어’라는 특정분야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라, ‘미디어’라는 용어의 가장 광의의 의미를 가리킨다. 적어도 맥루한에게는 ‘미디어’란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매체’를 의미하며,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몸도 매체 즉 미디어의 한 종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매체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라는 태생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체감각은 몸을 갖고 태어

1) 참고하는 있는 번역서에서는 extension을 모두 “확장”으로 오역하고 있다. 확장은 A라는 미디어가 B라는 미디어와 연결되어, 자신을 확장 혹은 확대한 것을 의미하는 번역인데, 이는 ‘연장’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연장’(extension)은 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와 잡종화 혹은 혼종화되어 새로운 행위주체성(agenial subjectivity)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데카르트가 정신과 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했던 이유이다. 연장되는 것은 말하자면 ‘몸’이지만, 그로부터 창발하는 행위주체성은 ‘몸의 확장된 버전’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정신’ 혹은 행위주체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정신 혹은 마음과 몸의 개념에 대한 매우 어려운 논의를 동반할 것이다. 여기서는 앤디 클라크와 마셜 맥루한의 저술들 속에서 extension이 연장이 아니라 ‘확장’으로 오역되는 문제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연장을 확장으로 번역할 경우, 연장 이전의 정신 혹은 주체가 몸을 매개로 다른 존재들을 제국주의적으로 통합하고 식민화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높아지며, 이 경우 연장은 팬더믹과 기후변화 및 생태계 위기의 시대에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강화시키는 개념으로 오해될 여지가 농후하다.

나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미디어이다. 하지만 옷이나 집은 인간이 문명적으로 갖게 된 미디어이다. 이런 의미에서—앤디 클라크의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라는 문구를 모방하자면—인간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미디어’인 셈이다.

하지만, 인간의 미디어 역량이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근대 산업혁명기 기계 시대에는 “인간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연장]”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전자 미디어의 시대에는 “최소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소멸시키며 우리의 중추신경체계 자체를 전 지구적인 것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McLuhan, 2011, 5).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인간 연장의 마지막 국면으로서 “인간 의식을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맥루한은 예언한다(McLuhan, 2011, 5). 이 인간 의식의 기술적 시뮬레이션에서 맥루한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창조적 과정도 인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집합적이고 협동적인 형태로 [연장]”될 것을 기대한다(McLuhan, 2011, 5). 실제로 맥루한의 이러한 상상력은 일본의 SF 애니메이션 작품 시리즈 <공각기동대>에 그대로 담겨졌다. 물론 <공각기동대> 시리즈들을 제작한 감독들이 맥루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맥루한의 작품을 참조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각기동대> 시리즈 두 번째 애니메이션인 <이노센트>는 주인공 쿠사나기 소령이 의식을 가상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필요할 때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행위주체로 육화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맥루한이 “인간 의식을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현해 주고 있다.

아울러 ‘연장’이라는 용어의 사용도 서구철학의 맥락에서 사용되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 데카르트가 존재를 실체론적으로 조망하면서, 사유와 연장의 이분법으로 정의할 때, 연장(extension)은 실체론적 어떤 ‘것’에 부여된 속성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맥루한이 말하는 ‘연장’은 어떤 ‘것’에 구애되거나 한정되지 않고, 어디로도 연장될 수 있는 ‘연장력’(extendibility)이나 ‘연장’(extension) 자체를 더 강조한다. 그래서 연장은 단지 생물화적인 몸의

특별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말의 본래적 어원 즉 ‘매체’의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다. 서구 근대문명의 상상력 속에서 인간의 몸은 ‘기계’처럼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 같은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인 몸과 기계는 다르지 않다. 데카르트의 연장(res extensa)은 실체를 개체적이고 원자론적인 것으로 보아서, 연장을 조립체(asssemblage)의 구성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다수의 연장(res extensa)들로 구성된 몸은 기계처럼 조립체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맥루한의 연장 개념은 바로 이 기계류로서의 ‘연장’이라는 관습적 용례의 맥락을 넘어선다. 연장은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해서, 이 새로운 혼종적 시스템이 정신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맥루한은 사유와 연장이라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을 ‘인간의 연장으로 미디어’라는 개념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과 몸은 전혀 다른 실체로서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던 데카르트와는 달리, 맥루한의 연장이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혼종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연장의 관점에서 마음과 몸의 이분법은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데카르트가 말하던 마음과 몸의 이분법은 설 근거가 없어진다. 오히려 몸은 인간의 마음이 새로운 인공지능체들과 더불어 보다 거대한 연장적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해주는 ‘매체’(medium)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연장이란 말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 감각의 [연장]”을 의미한다(McLuhan, 2011, 57). 인간은 몸의 감각들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또한 감각을 통한 정보의 입력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의식과 경험을 형성”한다(McLuhan, 2011, 57).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몸의 감각들을 활용하여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들을 경험으로 구성하여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주변세계를 구성해 나아간다. 말하자면 감각은 뇌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정신이 외부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미디어’ 혹은 ‘인터페이스’인 셈이다. 뇌 자체는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뇌가 외부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며, 이 감각을 활용해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변세계”(Umwelt)로 구성한다(Hoffmeyer, 2008,

171). 주변세계란 유기체를 둘러싼 객관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기체가 자신의 감각적 능력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구성한 세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감각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자신의 삶에 적합한 주변세계로 구성하면서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디어의 변화는 곧 인간 삶의 변화를 더 나아가 인간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미디어는 그 어떤 무엇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 무엇이든지 혹은 그 어떤 존재든지 연장의 ‘매체’ 즉 미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어는 “미디어의 효과를 통해서만 연구될 수 있다”(McLuhan, 2011, xxi). 미디어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하는 매체이고,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한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연장 효과가 삶과 활동에 남긴 효과들을 통해서만 그 맥락에서 미디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맥루한은 이 효과와 변화가 미디어의 메시지임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전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를 활용한 통신 미디어 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류 전체의 일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속에서 인류 전체의 일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중추신경체계를 기술적으로 [연장] 시키”는 시대가 되었다(McLuhan, 2011, 7). 그래서 도래한 것이 바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지구촌”(global village) 효과이다(McLuhan, 2011, 7). 전자기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세계에서 이제 모든 소수집단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의미에서, 고립되고 제한된 집단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으며, “전기 미디어 덕분에, 우리가 그들의 삶에 개입하듯이, 이제 그들도 우리 삶에 개입한다”(McLuhan, 2011, 8). 그래서 전자 미디어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들 이외의 인류 공동체와 총체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깨닫게 되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인간으로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전환되어 갈 것이다”고 맥루한은 서술하고 있다(McLuhan, 2011, 114). 결국 미디어의 변화는 인간의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됨’(being-human)의 본질 자

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루한은 인간의 본질을 미디어에서 보았다. 이는 인간의 본질이 고정된 어떤 것으로 존재한다거나 미디어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미디어의 본질은 매개하는 매체이고, 인간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신을 매체로 모든 것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감각적 특성이 담지하고 있는 근원적 성격이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연장된 인간은 그의 중추신경계를 온 인류에로 연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성, 공감능력, 그리고 깊이 있는 인식에 대한 ... 열망”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존재가 궁극적인 조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깊은 신념”이 강화된다 (McLuhan, 2011, 10). 이런 시대의 미디어의 특징을 맥루한은 “쿨”한 미디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관여나 참여를 하게 되는 미디어를 가리킨다. 근대 산업혁명과 기계 시대의 미디어는 이런 맥락에서 ‘핫’(hot)한 미디어로 기술되는데, 이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이 정보로 가득차서 수신자가 그 정보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거의 불가능한 미디어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핫한 미디어 혹은 뜨거운 미디어는 데이터로 가득 차 정보 집적도가 높은 미디어를 말하는데, “뜨거운 미디어는 이용자의 참여도가 낮고, 차가운 미디어는 참여도가 높다”(McLuhan, 2011, 60). 여기서 뜨거움과 차가움은 우리의 일상적 감각경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말은 차가운 미디어이고, 문자는 뜨거운 미디어이다. 맥루한에 의하면, “우리 시대는 뜨거운 형식은 배제되고, 차가운 형식을 지닌 것은 우리 생활과 예술 속에 포함”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McLuhan, 2011, 61). 차가운 즉 쿨한 미디어의 등장은 인간을 연장하는 미디어 기술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접촉하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의 등장을 의미한다. 요즘 우리 시대의 매체는 영상정보들이 많아짐에 따라 물리적 정보량은 급격히 많아졌지만, 맥루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쿨한 미디어’의 시대이다. 정보가 독점 공급되어 반복되고 주입되기 보다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식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가 메시지이다”라는 맥루한의 말은 미디어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새롭게 창출해 낸다는 것을 가리킨다(McLuhan, 2011, 16). 이는 기존에 미디어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종속적으로 이해하던 통념을 전복하여, 오히려 메시지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변화 그 자체가 미디어의 메시지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 즉 환경은 수동적으로 우리 삶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아가는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McLuhan, 2011, 16). 문자 미디어의 도입은 인간의 암기력을 생물학적 두뇌 바깥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문명의 발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며, 향후 문명이 ‘탈부족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 미디어의 도입은 이제 자료 분류를 디지털 패턴 분석에 의존하면서, 생물학적 두뇌가 컴퓨터나 인공지능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문명을 바꾸어 놓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다. 구술문화에 문자 미디어가 도입되었을 때, 사진의 시대에 영화 미디어가 도입되었을 때, 담기는 내용의 메시지가 동일하다하더라도, 전달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문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특별히 미디어와 기술의 효과들은 “견해나 개념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 비율이나 지각 패턴을 아무런 저항 없이 서서히 변화시키”는데 있다(McLuhan, 2011, 52). 따라서 미디어가 바뀌면, 사람의 감각비율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이 변화가 미디어의 메시지인데, 이 미디어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존 개념으로 생각하는 ‘메시지’에는 전혀 포착될 수 없는 메시지가 되어 버린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나 문화를 형성하는 힘[은] 미디어의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에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가 메시지이다’라는 말은 이 변화와 효과를 포착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도리어 미디어가 형성하는 “벽 없는 감옥”에 갇혀 버린 채, (갇혔다는 의식조차 없이) 살아갈 것이다(McLuhan, 2011, 56). 따라서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맥루한의 말은 미디어가 인간과 문명의 전 부라는 말이 아니라, 미디어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적 발전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 변화는 언제나 우리를 미디어의 세계 속에 가두는 효과를 동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감금효과를 포착하고, 이를 넘어서 우리가 인간의 역량을 연장하여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를 타자나 우리와 다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장’으로서 수용하고, 그를 예술적 형식 속에서 포착하여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 넓게 연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연장된 정신

철학자 앤디 클라크는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 인간이 연장된다는 맥루한의 아이디어를 “연장된 마음”으로 포착한다(Clark & Chalmers, 1998). 말하자면, 인간의 연장을 통해 전과는 다른 인지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성되고, 이를 통해 마음이 연장되어, 정신적 역량이 초거대화(supersizing)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간의 연장 능력을 클라크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Natural-Born Cyborgs, 2003)라고 표현한다(Clark, 2003, 3).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간이 이제 생물학적 두뇌와 배선들을 접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은 기술 및 도구들과 공생하는 “공생체”(symbiont)²⁾라는 의미에서 자연적 사이보그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마음을 심리적인 내적 과정으로 묘사하는 기존의 사유습벽을 넘어, ‘체현된 마음’(the embodied mind)의 체현

2) “체현된 정신”은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에반 톰슨과 엘레노어 로쉬와 함께 저술하여 1991년에 출판한 책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의 제목이다.

(embodiment)이라 부르는 것을 ‘연장’(extension)으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다. 즉 마음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계산적인 내적 활동을 넘어, 오히려 몸과 더불어 그리고 외부 세상과 함께 연동된 과정임을 주장한다. 체현은 마음이란 ‘몸과 더불어’ 즉 몸과 불가분리한 과정임을 강조하는 반면, 연장은 마음이 몸을 매개로 외부 인공장치나 도구를 통해 세계로 연장된다는 것 그래서 몸을 포함하여 외부사물과 인공장치 및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장되며, 최종적으로는 세계로 연장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장은 최근 마음을 설명하는 이론적 패러다임들 중 특별히 체현(embodiment)과 창발(emergence)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마음이란—비록 기능적 역할은 다를지라도 몸과 같이—공생을 위한 기관(organ)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이 공생은 단지 마음과 몸의 생물학적 공생을 넘어 사물 존재나 인공장치들과 더불어 공생하며, 세계를 이룬다.

클라크는 이점에서 마음을 몸과 실체론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어떤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마음이란 그 자체로가 아니라—혹 우리들 몇몇에게는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진화한 기관(organ)으로서, 그 중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마음’이란 “생물학적 몸을 제어하기 위한 기관”이다(Clark, 1997, 1). 마음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 몸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육체성을 결여한”(disembodied) 무엇이 될 수 없다(Clark, 1997, 1). 구체적으로 말해서 마음이란 “두뇌와 몸과 세계를 결합하는(coupling) 역동성과 복잡한 반응 고리들에 부속된” 기제이다(Clark, 1997, 1). 다시 말해서 마음이란 “실제-세계 문제들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유연한 결합(coupling), 즉 시스템과 실제-세계 환경 간의 유연한 결합”으로부터 유래하며, 그래서 마음의 역량인 지능과 이해는 “실재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들의 조율”이다(Clark, 1997, 3, 4).

클라크는 마음을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측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인간의 뇌 기능과 연관해서 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음은 “때로 다수의 정보원천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가상적 예측을 통해 음

직업이나 전략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감당한다(Clark, 1997, 3). 몸의 동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몸의 위치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몸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입출력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대응하다는 것은 매우 에너지 소비적인 과정과 절차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운동과정에서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면서도, 반응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세계의 활동을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그 예측에 기반하여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동작 에뮬레이터”(motor emulator)라는 마음기능모듈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신경회로로서 자기수용감각의 피드백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미리 예측하여 일종의 “가상 피드백”(virtual feedback)을 구성해서 두뇌가 실시간 대응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Clark, 1997, 23). 몸을 움직일 때, 두뇌는 “자기수용감각”(proprioception)이라는 감각 피드백을 사용한다. 그래서 컵을 집으려고 할 때, 컵을 집는 손이 나아갈 궤적을 따라 감각 피드백의 신호들이 몸의 감각말단으로부터 두뇌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포함한다(Clark, 1997, 23). 하지만 감각신호가 두뇌와 말단신경을 오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지체가 발생한다. 그 지체시간이 절대적으로 긴 것은 아니지만,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그 잠깐의 시간지체는 생존의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된다. 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뇌는 바로 동작 에뮬레이터라는 가상 피드백을 구성해서 손이 이렇게 나아갈 경우 “자기수용감각의 피드백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미리 예측하여 빠른 처리를 한다(Clark, 1997, 23). 이 과정은 외부로부터 감각신경을 통해 두뇌로 유입되는 입력정보에 대응하여 마음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가 “감각운동 이미지의 형성”을 통해 외부세계를 내부적으로 “맥락화”(contextualization)하면서, 외부세계에 대한 “내부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 내부 (예측) 이미지와 실제 감각들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예증한다(Linás, 2008, 68).

클라크의 연장된 마음(the extended mind) 이론은 마음이 “다양한 류의 특정한 외부 구조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데 특별한

초점을 갖고 있다(Clark, 1997, 179). 이 외부 구조들은 “우리 개인의 인지적 업무목록을 보충하고, 그래서 인간 이성이 보다 더 넓은 사회적 물리적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확산되어 갈수 있도록 가능”한다(Clark, 1997, 179). 말하자면 인지는 결정적으로 “추론을 산란하는 능력,” 즉 “지식과 실천적 지혜를 복잡한 사회구조들을 통해 퍼뜨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두뇌를 언어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제한조건들의 복잡한 망 속에 정초함으로써 개별 두뇌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에 달렸다(Clark, 1997, 180). 우리 두뇌의 능력은 다른 동물들의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물리적 사회적 세계들을 구조화하여, 이 무질서한 자원들로부터 복잡하고 일관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는 점이다(Clark, 1997, 180). 지능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구조화함으로써, 우리가 지능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상대적으로 보다 빠른 대응을 하여 원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인지와 지능은 특별한 셈이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바로 이 인간 두뇌와 환경적인 “외부 비계들”(external scaffoldings)로 구성되는 것이다(Clark, 1997, 180). 인간의 두뇌는 몸을 통해 “세계 내 구조들을 창출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Clark, 1997, 221). 예를 들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와 사람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에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두뇌의 일부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스마트폰은 두뇌를 위한 보조 장치를 넘어서, 두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다(Chalmers, 2011, ix).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전화번호를 기억하거나, 연락처에 연락을 하는 일들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뒤져야 한다. 이는 우리의 생물학적 두뇌의 기억능력이 감퇴했기 때문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디지털 장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를 굳이 우리의 뇌 속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스마트폰을 두뇌의 외장하드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몸과 감각은 우리의 사유의 연장이다. 이 몸과 감각을 통해 연장되는 정신은 세계를 단지 정신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의 일부”로 만든다(Chalmers, 2011, ix-x). 이는 연장된 정신 이론의 핵심 논제인데, 즉 “환경의 일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두뇌와 짝을 이루게 되면, 그 환경의 일부는 정신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Chalmers, 2011, x). 사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펜을 통해 생각을 하거나 혹은 자판을 통해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 펜을 들고 직접 무언가를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나거나 자판을 두들기며 생각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사실 “인간의 감각, 배움, 사고 그리고 느낌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더불어 우리의 몸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들에 의해 모두 구조화되고 정보를 전달해준다”(Clark, 2011, xxvi).

따라서 클라크는 마음을 바라보는 기존의 두뇌의존적(brainbound) 관점을 넘어 연장된 마음(the extended mind)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즉 클라크는 마음이 두뇌에 한정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매개로 외부세계로 연장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단지 두뇌를 매개로 정신이 외부와 상호작용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은 두뇌를 새어나가(leaky), 외부세계와 더불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능동적 동역학 보다는 소극적 동역학(passive dynamics)를 사용하는 인간의 보행이 대표적이다. 인간의 보행은 자체 에너지의 소비를 최대한 자제하고, 중력과 관절을 이용하는 동력시스템으로서, 주변 환경의 조건들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방식이다. 주변 환경을 구조화하여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을 인간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악어의 성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변 환경의 사물들 중 지표가 되는 것의 온도를 측정하여, 알에 들어있는 새끼의 성이 생태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미시시피 악어는 알을 썩어가는 식물덤불들 속에 낳아서, 그 썩는 식물들의 온도가 알에서 태어나는 새끼의 성(性)을 결정하도록 한다(Clark, 2011, 7). 알을 품은 식물 덩굴 속 등지의 온도가 화씨 93도(섭씨 33.89도) 이상이면, 알에서 태어나는 악어는 수컷이 되고, 등지 주변 온도가 화씨 86도(섭씨 30도) 정도면 암컷이 된다. 식

물들이 썩는 온도는 그 알에서 태어날 악어새끼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을 읽는 기호가 된다. 성비는 생물집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집단의 성비가 1:1이면, 다음 세대에 인구절벽이 찾아오고, 암수 비율이 1.3:1이면 인구폭발이 찾아온다(Sober & Wilson, 1999, 43). 미시시피 악어는 알을 낳은 동지의 주변 환경 온도를 통해 악어집단의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집단의 성비를 적응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기체가 유전적으로 배선된 알고리즘을 결정론적으로 따르거나 외부환경의 신호를 받아들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환경의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극적 동력이란 자체의 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주변의 광범위한 힘들과 요인들을 인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러한 소극적 동력계들의 특징은 “거주적 상호작용”(inhabited interaction)인데, 이는 서로 분리된 개체들이 일으키는 상호작용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몸에 거주하고, 우리의 몸은 세계에 거주하고” 그래서 우리와 몸과 세계를 단절됨 없이 매끈하게 연결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Clark, 2011, 10). 말하자면 숙련된 목수에게 몸과 연장은 자신과 분리된 도구와 몸이 아니라, 그 자체로 “투명 장비”(transparent equipment)가 된다(Clark, 2011, 10). 말하자면, 장비는 행위주체의 주의집중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행위주체는 장비들을 통해 손에 잡힌 과제를 “뚫어보는”(see through) 것이다(Clark, 2011, 10). 이러한 일이 플라야볼을 잡으러 뛰어가는 야수들의 행위 속에서 일어난다. 즉 야수는 날아오는 볼의 궤적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어디로 공이 떨어질지를 예측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과 함께 달려간다. 마치 본능인 듯이 말이다. 이 과정에서 두뇌와 몸과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데, 감각은 바로 “이 연결을 여는 것”(the opening of a channel)이다(Clark, 2011, 16). 이렇게 두뇌와 몸과 세계가 연결된 인지는 인지주체에게 적합한 입력들을 창출하거나 소환해 낸다(Clark, 2011, 21).

따라서 클라크의 연장된 마음 이론은 맥루한의 인간의 연장으로서 미디어

개념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뒷받침하면서, 연장과 마음의 관계를 이원론이 아닌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즉 미디어를 통해 인간이 연장되는 것은, 적어도 클라크의 이론을 참고하게 되면, 마음과 두뇌와 몸과 세계가 연결된 “연장연속체”(extensive continuum)이기 때문이다(Whitehead, 1985, 61). 이는 “세계에 대한 ‘연장적’(extensive) 관계들에 대한 의식”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자면 현실체가 바로 지금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현시적 즉자성”(presentational immediacy)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를 가리킨다. 맥루한과 클라크와 화이트헤드의 ‘연장’(extension)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과 구조들 속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나 ‘마음’과 같은 것을 어떤 고정된 실체나 대상으로 상상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사유습관은 대상-중심의 혹은 명사-중심의 사유로 습관화되어 있어서, 늘 실재를 명사나 대상과 같은 고정되고 독립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실재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인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형식과 구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몸을 매개로 주변 환경과 연결된 구조를 형성하면서 작동한다. 이를 앤디 클라크는 ‘연장된 마음’(the extended mind)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음의 연장능력은 특별히 모든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 인간 마음이 문명을 하나의 초유기체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로부터 유발되는 오작동이나 결합의 문제는 팬더믹 이후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의 만남을 연장하는데 익숙해진 시대에 매우 세밀한 관찰을 요할 수 있다.

3. 인간의 연장이 초래하는 문제들: 자기절단 그리고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

우리는 이미 인간 혹은 마음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연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맥루한은 중추신경계를 몸 밖의 전자 미디어 기술과 디지털 네트워크 미디어에 연동하여, 우리의 개인생활과 집단생활이 “정보 처리 과정”의 일부가 되어버린 시대를 예견하고 있었는데, 이는 “데이터 종교”

라는 현실로 도래하였다(McLuhan, 2011, 116; Harari, 2015, 377). 데이터 종교란 전통 종교의 한 형식이 포스트휴먼적 현실로 진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가 매트릭스로 작동하는 데이터 알고리즘 시대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종교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가 우리의 종교가 되어 우리의 의사와 결정을 결정하게 되는 시대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판단은 더 이상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빅데이터를 연산하는 알고리즘의 통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데이터 종교의 시대에 전체 인간 종은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처리 시스템”이 되고, 개별 인간은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칩”(chip)으로 작동한다(Harari, 2015, 377). 즉 데이터 종교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연산하면서 얻은 통계적 결과를 통해 정치나 경제 혹은 사회를 위한 결정들을 내리며, 이를 신뢰하는 호모 데우스 시대의 에토스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정보 형태로 번역되어” 가면서, “의식 자체의 기술적 확장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즉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넘어서 다른 형태의 표현들로 번역”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McLuhan, 2011, 127). 하라리는 이를 “테크노-휴머니즘”(techno-humanism)이라 표현하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정신을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호모 데우스”를 실현하려는 성향을 경고한다(Harari, 2015, 352). 이는 문명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의 기호자본주의적 경쟁문화 속에서 이겨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의 시대는 정확히 “불평등의 업그레이드”(upgrading inequality) 시대이다(Harari, 2015, 346). 이런 시대에 맥루한은 이러한 변화가 나르시스의 감각 마비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우리의 “의식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정보라는 정신적 형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지구 전체를, 그리고 인류라는 가족을 단일한 의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예언하지만, 하라리는 이를 “데이터 종교”의

정후로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McLuhan, 2011, 134, 134; Harari, 377). 변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지한 채 그저 이끌려 갈 때, 그 변화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음을 맥루한은 일찍이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크는 ‘연장된 마음’의 시대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둔감하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맥루한과 베라르디는 이 연장된 마음의 시대가 초래할 문제를 지적하는데, 맥루한은 ‘자가절단’이라는 개념으로 조명하고,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Franco ‘Bifo’ Berardi)는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1) 자가절단(autoamputation)

마셜 맥루한은 인간의 연장이 초래하는 변화들과 문제들을 “자가절단”(autoamputation)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기술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새로운 기술의 형태로 [연장]시키고 절단함으로써 전형적인 자기 마비 상태”를 야기한다(McLuhan, 2011, 37). 즉 본래 기술과 미디어는 인간의 ‘연장’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중추신경계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될 때, 중추신경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장된 기술을 타자화하여 절단해 낸다.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정보들을 쏟아내며, 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초래해 다양한 정도의 “정신적 붕괴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McLuhan, 2011, 47). 말하자면 뜨거운 미디어가 전하는 과밀한 정보는 배움의 대상이 되거나 동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식혀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추신경계에 과도한 부담 즉 스트레스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를 맥루한은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려 “검열”이라 표현한다. 검열은 “경험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경험의 엄청난게 많은 부분을 냉각시킴으로써 우리 신체적 중추신경체계를” 방어한다(McLuhan, 2011, 62). 하지만 이 검열의 냉각체계는 동시에 “평생 지속되는 일종의 정신적인 사후 경직(riort mortis)이나 몽유 증상이라는 상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기술의 격변기에 자주 관찰된다(McLuhan, 2011, 62). 특별히

이러한 증상은 차가운 기술과 미디어 뒤에 뜨거운 미디어나 기술이 출현하게 되면 자주 등장하여 파괴적 충격을 일으킨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초래되는 자가절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명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한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와 결합하거나 다른 체계와 이중교배를 형성하는 것은 곧 체계의 전환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 동시에 미디어와 미디어의 결합이나 다른 체계와의 이중교배는 중추신경계에 큰 부담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따라서 중추신경계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그 결합이나 이중교배로 인해 증폭된 연장(extension)을 “자가 절단”(autoamputation)함으로써 중추신경계를 보호한다(McLuhan, 2011, 98).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디어를 통한 우리의 연장(extension)은 언제나 “감각 마비 상태”로 떨어진다(McLuhan, 2011, 98). 자가 절단은 생리학적 용어인데, 지각적으로 “불편한 자극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때” 지각은 자가 절단 능력 혹은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McLuhan, 2011, 98). 다르게 말해서, “다양한 종류의 과도한 자극이 신체에 가해져 스트레스를 일으킬 때, 중추신경체계는 상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기관이나 감각, 기능을 단절하거나 고립시키는 전략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한다”(McLuhan, 2011, 98). 맥루한은 자가절단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해 사랑에 빠진 것으로 해석되던 나르시스의 신화를 재해석함으로써 설명하는데,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는 통념적인 해석을 뒤집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연장(extension)으로 해석한다. 즉 맥루한의 재해석에서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신의 연장을 타인으로 인식하여, 그 상상의 타자와 사랑에 빠져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연장은 타자가 아니라 자신의 연장이다. 즉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일종의 자신의 연장이다. 그렇게 연장된 자신의 모습은 몸의 감각비율을 바꾸어 놓고, 이 감각비율의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중추신경계는 자신에게 “가해진 긴장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가 절단”을 수행한다. 그래서 나르시스는 자신의 연장을 타자로 간주하고, 잘못된 에로티시즘을 발휘하여 파국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다. 나르시스의 파국은 변화된 감각비율의 변화와 그로 인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중추신경계가 자가절단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연장을 타자화해 버렸고, 나르시스는 중추신경계의 자가절단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타자화된 자신의 연장 즉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 물로 뛰어 들어가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맞는다. 맥루한에 의해 재해석된 나르시스의 신화는 인간이 첨단 미디어 기기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연장되는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체의 [연장물들]을 정말로 ‘저기 바깥에’ 있는 것, 우리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간주하는 나르시스적 태도를 갖게 될 때” 어떤 파국적 결과가 도래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McLuhan, 2011, 147). 우리가 인간 연장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기술적 도전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마치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 것처럼 버둥대다가 결국엔 붕괴하고 말 것이다”(McLuhan, 2011, 147). 맥루한은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려는 의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McLuhan, 2011, 150).

사실 “우리 자신을 기술적인 형태로 [연장]한 것들을 보고, 사용하고, 지각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연장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McLuhan, 2011, 106).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면서, 그 기술의 자동제어체계와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맺음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형하고 적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치 벌이 식물의 생식기이듯이 인간은 말하자면 기계 세계의 생식기로서 언제나 새로운 형태들을 수태하고 진화시키는 것이다. 기계 세계는 인간의 소망과 욕구를 촉진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인간에게 부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에 보답한다”(McLuhan, 2011, 107; Haraway, 2016, 69). 그렇게 각 유기체는 각자의 주변세계(Umwelt)를 구성하고, 그를 통해 다른 체계들과 더불어 공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생은 자연스럽게 혹은 그저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절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의 세계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얽혀 공생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연세계를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을 적용하여 적자생존과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세계로 변형해 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적자생존의 진화론이 널리 공감대를 넓혀가던 시기는 유럽 제국들이 용기 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와 민족들을 식민화하고, 잡아먹는 시대였다는 점이다. 자연 세계에는 ‘포식자’(predator)가 분명히 존재하고, 포식자는 피식자를 먹이로 삼아 생존을 이어간다. 문제는 자연의 모든 관계가 포식자-피식자 관계로 구성되어, 자연선택의 압박 하에서 적자생존과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맥루한이 예로 들고 있는 꿀벌은 꽃과 공동의 삶을 이루며 살아간다. 프랑스 중부 지방에는 ‘꿀벌 난초’(bee orchid)라는 꽃이 서식하는데, 이 난초의 꽃 모양은 암벌의 생식기 모양을 닮았다. 말하자면 이 난초는 숫벌의 에로티시즘을 자극하여, 벌들을 자기에게로 유인하고, 꿀벌들이 오면 그들이 원하는 꿀을 제공하는 대신 수분을 묻혀 그들로 하여금 난초의 번식을 돕도록 한다. 그런데 만일 기후 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인해 꿀벌들이 멸종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꿀벌 난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물음을 통해 해러웨이는 자연 혹은 생물의 세계가 변이와 도태를 통한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으로만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킨다(Haraway, 2016, 69). 꿀벌이 멸종하면, 그렇다 난초도 멸종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꿀벌과 난초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러웨이는 유기체를 ‘스스로 삶을 만들어 낸다’는 뜻으로 “자가생산”(autopoiesis) 개념을 제시한 움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 바렐라를 넘어서서, 유기체는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공동생산”(sympoiesis, 즉 making-with) 개념을 제시한다(Haraway 2016, 58). 그렇기에 생명은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companion)인 것인데, companion은 ‘함께’를 의미하는 라틴어 어원 cum과 ‘빵’을 의미하는 panis가 결합한 단어이다. 즉 ‘동반자’(companion)는 ‘빵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의미한다(Haraway, 2016, 11). 이 말은 절묘하게 꿀벌과 난초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맥루한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이 “기계세계의 생식기”라고 표현한다 (McLuhan, 2011, 107). 기계가 정신작용을 갖지 못하는 수동적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주체성을 갖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물이나 물질은 데카르트가 생각했듯이 수동적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혹은 인간 없이 스스로 연장을 통해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인 베넷은 “사물-권력”(thing-power)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Bennett, 2010, 2). 팬더믹과 기후변화와 생태계는 정확히 이 사물-권력의 힘을 인간 문명에 부정할 수 없이 명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인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은 비단 이 ‘연장의 역량’이 인간 고유의 어떤 것이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장의 힘’을 갖고 있고, 이 연장의 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얽혀’ 존재하도록 만들며, 이 얽힘의 힘을 카렌 바라드는 “내적-작용”(intra-action)으로 표현한다(Barad, 2007, 33).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외부의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적 연속체(extensive continuum) 안에서 얽혀(entangled) 내적-작용을 이루어가며, 함께 빵을 나누며, 삶을 혹은 존재를 ‘함께 만들어’(making-with)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맥루한이 “기계 세계는 인간의 소망과 욕구를 촉진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인간에게 부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에 보답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의 연장은 모든 존재의 연장과 얽힘을 내포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맥루한에게 ‘자가절단을 통한 타자화’는 인간과 문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맥루한이 자가절단을 통해 나르시스처럼 감각마비의 상태로부터 깨어나려면 우리의 의식을 현명하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McLuhan, 2011, 134).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가절단에 의한 감각마비 상태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의 생물학적 중추신경체계는 “연장되고 노출될 때, 그것을 마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McLuhan, 2011, 108). 언급한 바, 다른 존재로 연장된 우리가 중추신경계는 새롭게 변화한 감각비율의 변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가절단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감각비율의 분할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발명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몸 밖으로 연장된 시대는 그래서 “감각 마비”의 시대이다(McLuhan, 2011, 108). 다시 말해서 연장된 마음의 시대는 곧 감각비율의 변화로 우리의 중추신경계가 자가절단을 시행하여 감각을 마비시킨 시대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각마비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마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무의식과 무감각의 전자 미디어 시대는 또한 “무의식을 의식하는 시대”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중추신경체계가 전략적으로 마비될 때, 의식을 통해 지각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 결과 처음으로 인간은 기술이 자신의 신체의 확장임을 의식하게 된 것이다”(McLuhan, 2011, 108). 자가절단을 통한 감각마비를 통해 기계를 타자화한 우리가 그 타자의 얼굴에서 우리의 무의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계를 통해 우리의 소망과 욕구를 실현해 나아가는 모습을 자각할 때, 우리는 기계가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전기 시대에 이르러 ... 전 인류를 우리의 피부로 삼게 [되]”며, 그래서 우리는 나르시스의 감각마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맥루한은 주장한다(McLuhan, 2011, 108). 따라서 맥루한은 중추신경계의 연장으로 감각마비가 초래된 시대에,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우리의 피부로 삼아 실재를 접촉하는 환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의식을 통해 지각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 즉 나르시스적 감각마비로 인해 타자화했던 우리의 연장을 우리의 일부로 보는 일이라고 본다(McLuhan, 2011, 108). 팬더믹은 맥루한의 이런 주장이 더욱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지구의 기후시스템과 생태계는 인간에게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장으로서, 우리와 얽혀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임을 팬더믹은 고통스럽게 증언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와 종의 멸종 등으로 야생동물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서식지를 잃게 되자, 변이를 일으켜 현재 지구상

에 가장 거대한 생물 종인 인간과 가축에게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화적인 일이 아닌가. 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가 인간이 지구와 생태계, 다른 생물 종들과 자연자원들을 타자로 간주하여, 인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착취하면서 초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뚜렷이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맥락에서 ‘연장된 마음’은 우리에게 ‘생태-시물-지구-인간’의 얽힘과 공생과 더불어 함께-만들기의 삶을 창출해 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는 인간이 미디어를 통해 중추신경계를 신체 밖으로 연장하는 시대를 ‘기호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감성(sensitivity)과 감수성(sensibility)의 분극화로 분석한다. 본래 감성과 감수성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감각 자료들을 처리하고, 타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함께 작동한다. 우리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는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 팬더믹같은 대면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적 대면의 만남으로 삶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에서의 만남은 인간의 생물학적 오감을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오직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여 만남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가 야기된다. 감성(sensitivity)은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감각능력”을, 감수성(sensibility)은 “공감하며 이해하기를 가능케 해주는 능력”을 가리킨다(Berardi, 2013b, 43). 감수성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하고, 비언어적 기호들과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이제 디지털화되지 않는 이 능력이 기호자본주의적 삶에서 점점 탈각되고 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와 다른 타자와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타자-되기”의 가능성을 갖지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 만남이 대면과 연대의 만남을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Berardi, 2013b, 68). 결과적으로 만남의 의미론적 소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적으로 접속된 환경에서는 물리적으로 몸을 맞대거나 마주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수성 능력이 도리어 “쓸모없거나 심지어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Berardi, 2013b, 70).

베라르디는 이러한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가 팬더믹으로 인해 도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촌과 세계화를 가능케 했던 물리적 토대이며, 이러한 기술적 토대 하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엄마보다 오히려 TV나 디지털 디바이스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말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기호자본주의의 시스템적 토대가 이러한 분극화의 원인이고, 이는 다시 정신적 질병들의 증가와 테러리즘과 폭력의 증가를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한다.

자본주의적 구조가 산업자본주의로부터 소비자본주의 그리고 금융자본주의로 진화했고, 이제 우리들의 시대는 기호자본주의로 진화하여, 이제 자본의 생산이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호들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노동자들은 이제 공장으로 출근하여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에서처럼 나사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고 네트워크에 뇌 신경을 직접 접속한다. 따라서 기호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우리의 두뇌에 접속”하는 체제이며, 이 접속으로 인해 우리의 “두뇌는 맥박을 온몸의 떨림으로, 결국에는 실신으로까지 가속화시키는 병리적 동인, 즉 정신병의 mim을 껴안은 셈”이다(Berardi, 2013a, 91). 네트워크와의 접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속도와 생물학적 뇌의 처리속도의 격차가 뇌에 과부하를 일으키고, 탈진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간의 제약없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의식이 [정보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능력, 기호나 사건을 정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용량/능력”을 초과하고 있고, 이것이 탈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Berardi, 2013a, 76). 오늘날 자본주의의 착취는 노동력이 아니라 “신경 에너지의 착취”인 셈이다(Berardi, 2016, 171). 이제 전 지구를 연결하는 디지털 정보 망 속에서 인간은 “수신기”

로 혹은 “정보영역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화된 전지구적 기계의 단자(端子)로 변형”된 것이다(Berardi, 2013a, 10).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를 복용 및 남용하는데, 항우울제의 남용은 자제력의 상실과 폭력적 행동의 분출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감정적 분출을 동반할 수 있으며, 우리 시대에 테러리즘과 문자마 폭력 및 소셜 미디어나 댓글을 통한 공격적 감정의 무분별한 분출들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베라르디는 주장한다.

기호자본주의의 물리적 토대는 바로 디지털 네트워크였다. 그로 인해 우리는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기로 진입하고 있고, 팬더믹은 이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기호자본주의 시대 노동자의 뇌는 대기 중인 컴퓨터처럼 가용상태로 기다리다, 작업주문이나 일자리가 들어오면 계약된 시간만큼 작업을 수행하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컴퓨터는 인지노동자의 파편화된 시간들을 재조립하기 위해 핸드폰을 올린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지노동자는 “집중하는 경쟁의 압박”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상의 정보의 속도와 자극 속에서 “인지능력과 감성을 지닌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하고 쉬지 못하는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제 정신의 환경이 되어버린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영역은 “정신병리적 환경”이 되어 버린다(Berardi, 2016, 176). 이제 노동자 자체가 탈인격화되고 프랙탈화되고 세포화된 시간상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팬더믹은 노동시장의 프랙탈화와 세포화 즉 파트-타임화와 프로젝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팬더믹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이전보다 더 가속적으로 줄어들고, 명퇴나 구조조정의 압박으로 회사를 나와 자영업을 하거나 배달직이나 택배일을 하는 이들의 수가 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외식업체나 분식업체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특별히 팬더믹 상황에서 경쟁의 핵심은 배달속도가 되어간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는 유기적 뇌신경을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한 채 대기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주

의는 언제나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로 장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로 인해 도래하는 정신병리적 효과는 인간의 “집중력, 정신적 에너지, 감수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우리를 “탈진”에 이르게 하고 있다(Berardi, 2016, 71). 그리고 소진과 탈진을 자아내는 기호자본주의적 삶의 상황은 과잉흥분과 공황, 주의력 결핍장애, 난독증, 정보 과부하, 그리고 신경회로의 포화 등을 야기하는 정신병리적 현상을 증가시키는 악한 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극복을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은 프로작과 같은 항우울제의 복용이지만, 이는 증상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증상의 효과만을 무마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울증을 야기하는 억압적 정서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작같은 항우울제는 기분을 조금 ‘업’시키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도록 한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삶의 조건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억압된 기분만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잉흥분과 문자마 폭력이나 댓글 폭력 및 여론의 마녀사냥 등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개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의 이면에는 바로 ‘자극의 변화’가 있다. 어머니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디지털 세대는 생물학적 감수성을 발휘해 환경과 사람을 통해 자극을 받기 보다는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자극을 받는다. 이 자극환경의 변화는 신체적 애착경험이 탈각되는 경험을 낳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 대한 경험이 가상화되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Berardi, 2016, 64). 더 나아가 이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만남이 대면과 결속이 아니라 ‘접속’으로 대체되는 시대를, 특별히 팬더믹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 대면과 결속의 만남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의 만남으로 대체되면서 소통과정은 디지털화되었고, 이제 의미론적 소통보다는 통사론적 소통이 더 잦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신에 새겨지는 효과가 “난독증, 불안, 무감각, 공황, 우울, 그리고 일종의 자살 전염병” 등의 확산이라고 베라르디는 경고한다(Berardi, 2013b, 69). 이를 통한 감수성의 약화는 결국 “윤리의 마비, 개인과

집단의 삶을 윤리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무능”의 원천이 되고 있다(Berardi, 2013b, 70). 현재의 인터넷 사이버 문화는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예시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 사이버 문화가 출현할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국적 교환, 개방성, 문화적 실험, 관용과 창의로 이루어진 수평적 공간”이 열리는 창조적 미래를 기대했다(Berardi, 2016, 147). 하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의 출현을 통해 실현되는 SNS의 세계는 점차 “광신과 편협”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이 아니라 “자신의 편집증적 공포와 혐오증”을 맘껏 발산하는 장이 되어버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악마화시켜 마녀사냥하는 디지털 사냥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Berardi, 2016, 148).

그럼 이 감성과 감수성의 분열로 초래되는 사회적 환경의 정신적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면과 연대의 모임으로 회귀해야 할까?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팬데믹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의 벽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신병리적 조건들이 가중되고 가속화되는 문제를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이 외면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관건은 우리가 개념을 발명하도록 만드는 자극이다. 모든 철학적 개념들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이 문제와 연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철학적 개념들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Deleuze and Guattari, 1994, 16). 베라르디는 비록 개념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개념의 발명을 위한 문제를 조명해 주고 있다. 그렇기에 기호자본주의적 구조 하에서 우리가 감수성과 감성의 분열로 인해 점점 더 정신병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의 경고를 흘려 들을 수는 없다. 비록 베라르디의 저술들은 팬데믹 이전의 작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 증상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번져가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안증과 우울증 유병률이 “2배가량” 높아졌다고 한다(이지혜, 2021.05.18.). 특별히 20-30대 젊은 층의 경우는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윤병기, 2021.05.12.). 이 기사들은 팬데믹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의 사이보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증거한다. 철학은 이러한 상황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4. 공생(symbiosis)과 공-산(共-産, sympoiesis)의 상상력: 함께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

해러웨이는 일찍이 유명한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우리 시대, 신화의 시대인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모두 키메라(chimera)로, 이론과 공정을 통해 합성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 곧 사이보그”이며, 사이보그는 “우리의 존재론이며, 정치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해러웨이, 2019, 19). 이 사이보그 담론은 결코 현실을 장밋빛으로 전망하는 미래적 낙관론이 아니다. 오히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가 명령-통제-통신(command-control-communication)의 일체성을 의미하는 C³와 정보(intelligence)를 가리키는 I가 하나로 통합된 C³I 시스템의 물리적 토대에서 탄생했음을 지적하면서, 사이보그는 군산복합체와 약탈적 자본주의 경제의 사생아임을 분명히 한다(Schmieder, 64). 그래서 한편으로 이 C³I는 완벽한 실시간 통제와 소통의 권력구조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서 여성이나 시대의 비존재로 내몰리는 이들을 사이보그 권력의 자원으로 착취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이보그 현실은 억압과 착취의 현실을 ‘실시간 소통’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의 이면에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가 인간/동물/식물/비유기적 존재들의 새로운 조립체 혹은 이상블라주를 구현하는 새로운 미래정치 현실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러웨이는 인간이 연장되는 사이보그 현실 속에서 억압적 구조와 해방의 가능성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기계, 인공과 자연, 마음/몸/기계의 혼종으로서 사이보그는 기존의 경계들을 위반하며, 기존 시스템들의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이보그로서 인간은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하에서 실시간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존재들과 접촉을 이어가며, 연장을 확대해 나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팬더믹으로 고립감을 느끼면서,

질어가는 외로움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묘사하는 말이
이며 동시에 이 현실을 극복하고 탈피할 출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 연장이 된 시대, 마음을 업로당하며 연장된 마음이 실
 현되는 시대에 자가절단(autoamputation)과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감각마비상태와 소통의 단절과 정신병적 징후들의 증가를 경
 험하는데, 팬더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코로나 블루’로 표기되는 우울
 증적 증세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또한 경험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 블
 루가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증세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심리적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감
 당한다(신용수, 2021.2.18.). 말하자면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효과를 팬더믹은 가속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코로나 블루가 증폭시키는 정신병리적 조건들은 많은 경우 심리적 고립감
 과 외로움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기호자본주의 인지노동자들이 스마트폰이
 나 전자장비를 통해 뇌신경을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모든 곳과 연결되어 있으
 면서 역설적으로 더욱 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과 평행한다. 팬
 더믹 시대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때, 코로나 블루가 확
 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접촉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 자본주의적 현실은 더욱 더 가속화되었다고 베라르디는 고발한다. 아마도
 이런 조건들이 더욱 더 가속화되는 것은, 맥루한이 지적하듯이, 자가절단으로
 인한 감각마비 효과일 것이다. 우리 시대의 인지노동자들은 인간이 이제 사이
 보그가 되어 연장된 마음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었다기 보다는 디지털 네트워
 크의 실시간 통제에 의해 더욱 더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고 느낀다. 이
 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나르시스처럼, 타자화하여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시
 키고, 우리가 느끼는 낯섬과 소외의 근원을 그 타자에게 돌리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모두를 타자로 느끼게 되는 감각마
 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모든 것과 연결된 시대, 우리가 마음을 털어

놓고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가 줄어든 것은 결코 팬더믹의 영향만은 아닌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접촉(contact)의 시대에서 접속(connect)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공감과 유대를 경험할 매체를 더욱 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접촉과 대면을 통해 오감을 활용하여 공감과 유대를 확인하던 우리가 이제 시각과 청각만을 활용하여 제한된 네트워크 상 대면만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각이 자가절단으로 인해 마비된 것이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의 경험이다(윤병기, 2021.5.12.). 그런데 접속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중추신경계는 감각비율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공감의 결여를 극심하게 겪고 있다.

그런데, 클라크가 말하듯이, 마음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여 연산하는 내적 기관이라기보다는, 공생을 위한 기관이다(Clark, 2003, 3). 바로 여기에 해러웨이가 말하는 해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음은 연장능력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공생집단체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이 베라르디가 기호자본주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간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라르디는 인간의 마음이 연장된 마음을 실현하면서 "보다 더 넓은 사회적 물리적 네트워크를 가로질러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Clark 1997, 179). 이미 맥루한은 쿨한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를 통해 연장된 인간이 모든 사람과 접촉하며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대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로서 인간은 이제 서로의 삶에 "개입"이 가능해진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McLuhan, 2011, 8). 이는 곧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비록 오감을 동반하지는 못하지만—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McLuhan, 2011, 8). 즉 연장의 시대는 정신적 질병의 조건들이 가속화하는 시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접속의 시대에 야기되는 우울증적 증세를 치유할 공감을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는 시대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연장된 마음은 개인의 두뇌가 깊어져야 하는 연산의 짐을 외부존재들과 더불어 함께 지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마음은 두뇌뿐만 아니라 환경을 외부비계들(external scaffolding)로 사용하여, 함께 삶을 창출하는 공생체(symbiont)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물학적 인간은 기계와 이질적인 존재가 되지만, 이제 사이보그로서 인간은 기계와 그리고 사물들과 더불어 공생체를 실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부터 사이보그 존재로의 전환은 맥루한이 말하는 자가절단의 감각마비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러웨이의 표현으로는 “허구”(fiction)일 수도 있다(Haraway, 2019, 18). 물론 ‘허구’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허구이자 사실”로서 허구를 말한다(Haraway, *ibid.*). 이런 맥락에서 해러웨이는 생명과 존재의 양식을 “공산”(共産, sympoiesis)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공산”이란 번역은 최유미로부터 유래하는데, “함께만들기”(making-with) 혹은 ‘공동생산’이란 뜻이다(최유미, 2020). 공산이나 공동생산이란 번역어는 공산주의(communism)을 떠올리게 하지만, 해러웨이는 칠레 생물학자 움베르트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프란시스 바렐라(Francis Verela)가 제안하는 생명개념인 “자가생산”(autopoiesis)에 대한 대안으로 sympoiesis를 제안하고 있다(Haraway, 2016, 58). 이는 근대 이래 존재를 ‘개체’(individual)로 정의하면서, 생명의 작용을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틀 안에서 조망해 왔던 우리의 사유습벽을 전복하는 제안이다. 생명은 그 어느 때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 유기체의 기초단위가 되는 세포가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은 한 박테리아 류가 다른 박테리아를 섭취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삼켜진 박테리아가 먹이로 소비되기를 거부하고, 숙주 박테리아와 공생하기를 도모하면서, 다세포 유기체를 구성하는 진핵세포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이 진화의 흔적인데, 진핵세포 내 에너지 공장으로서 기능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 내의 유전자와는 다른 자기 자신만의 유전자를 별도로 갖고 있다(Hoffmeyer, 2008, 119). 언급한바, 꿀벌과 꿀벌난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

면서, 함께 살아간다. 만일 꿀벌이 멸종한다면, 꿀벌이 다가와 수분을 널리 전달해 주면서 번식하던 ‘꿀벌난초’도 더 이상 생존을 이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공생’(symbiosis)의 시스템에 함께 참여하며, 삶을 ‘함께 만들어-나가는’(sympoietic) 존재들인 것이다. 클라크가 언급하듯, ‘연장된 마음’이란 어떤 실체론적 마음이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뇌와 몸과 세계가 함께 연동하여 살아갈 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바로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worlding-with, in company) 외에 다른 아니다(Haraway, 2016, 58).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장으로서 미디어 개념이나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 개념 모두 인간이 생물학적 신체의 구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 자신의 환경 속에 인공보조물이나 네트워크 장치 등을 통해 연장(extension)하여 더불어 존재를 구성해 나아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 연장된 세계로 인해 초래되는 자가절단과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라는 방향 속에서 대안과 치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예감케 한다. 자가절단으로 인한 감각마비는 자신의 연장을 타자화하면서, 타자와 분리된 존재가 됨으로 야기되는 증상이고,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로 초래되는 공감의 결여도 결국 타자를 악마화시키는 효과 때문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팬더믹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공감’이라면, 감각마비와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를 극복하는 길도 결국 ‘공감’을 사이보그적 현실 속에서 찾는 데에 있다.

다시 맥루한으로 돌아가서, 그는 인간이 이제 “기계 세계의 생식기”가 되어 “언제나 새로운 형태들을 수태하고 진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자(McLuhan, 2011, 106). 이는 인간이 기계와 성을 나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맥루한은 “마치 벌이 생식기이듯이”라고 언급하면서, 해러웨이가 예증하고 있는 프랑스 중부 지방의 꿀벌 난초와 꿀벌의 관계를 이 말의 비유로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꿀벌 난초는 꿀벌의 생식기가 아니다. 수벌에게 꿀벌 난초의 꽃은 암벌의 특정기관으로 보이도록 진화했을 뿐이다.

따라서 꿀벌 난초의 꽃은 수벌에게 암벌의 생식기관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알려주는 기억인 것이다.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맥루한은 기계가 인간의 생식기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마치 기계가 수벌처럼 유기체 인 듯이, 인간이 기계 세계의 생식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기계의 행위주체를 유인하여, 기계와 더불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미 언급한바, 전자 미디어의 시대는 깨달음이나 통찰 같은 창조적 과정을 개인의 내면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집합적이고 협동적인 형태로 [연장]"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McLuhan, 2011, 5). 그리고 이 깨달음의 집단체는 단지 인간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기계세계의 생식기로서 인간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고, 해리웨이가 사이보그의 해방적 신화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은 곧 기계와, 즉 인공적 존재들과 사물들과 다른 생물 종들과 더불어 삶을 '함께만 들어-나가는 내적-작용'(sympoietic intra-action) 속에서 공생한다. 물론 공생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사이보그가 자본주의적 실시간 통제와 소통을 통해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면서, 더욱 더 억압의 조건들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이미 보았다(Haraway, 2004, 26; 2019, 55). 이는 사이보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존재를 혹은 실존을 적자생존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장으로 설계해온 인간의 허구(fiction)으로부터 창출되는 장일 뿐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현실이 허구라면, 우리는 새로운 허구를 창출하면서 억압의 구조를 이탈할 수도 있다. 자연선택이 적자생존과 무한경쟁으로 그려지는 것은 과학의 탈을 쓴 진화론의 허구 때문이듯이, 진화의 장은 포식자-피식자의 관계를 최상위 질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공산(symbiosis & sympoiesis)의 관계를 최종질서로 하면서 그 하위 관계로 포식자-피식자 관계를 포함하고 있음을 사이보그의 "정치적 허구이자 사실"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연장하는 마음을 해방의 허구로 삼을 수 있다. 생물의 세계는 꿀벌 난초와 꿀벌처럼 함께 삶을 구성하는 공생체들의 세계이다. 그 공생체들의 삶에 포식자-피식자의 관계가 포괄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사실은 허구적

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상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나가는 글

본고는 인간을 미디어의 연장으로 보았던 마셜 맥루한과 연장된 마음 개념을 통해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로 보았던 앤디 클라크의 ‘연장’(extension)에 대한 관점들을 비교하면서, 이 연장된 인간의 출현이 가져올 문제들을 분석하고 살펴보았다.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과 해법은 저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더믹 시대에 디지털 네트워크로 우리의 존재를 연장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고 지적하는 것도 학문의 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소를 창출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생물학의 통찰과 동시에 생명이 함께-세계를-만들어(making-with, worlding-with)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해러웨이의 통찰은 그 모든 해법의 기저에 바로 무한경쟁과 적자생존 그리고 승자독식의 구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통찰을 얻는다. 자가절단과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는 결국 이 무한경쟁의 구조 속에서 심화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쉽게도 지면관계상 연장된 인간의 출현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는 못하더라도, 공-산으로의 관점 전환이 요구하는 것은 공생은 모두가 평화롭게 사이 좋게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낭만이 아니라, 오히려 공생의 관계는 그 하부질서로 포식관계를 포함한다는 것, 그래서 늑대라는 포식자가 숲의 생태적 균형에 기여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관계가 생명의 공-산 과정임을 아는 것이다(포크포크, 2017). 미디어가 인간의 연장이라는 맥루한의 통찰은 바로 존재의 ‘공동생산’(sympoiesis)이라는 통찰과 더불어 고려될 때, 중추신경계의 연장으로 초래된 새

로운 변화들을 미래를 위한 변화들로 긍정적으로 변환시켜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주제어】 인간의 연장으로서 미디어, 연장된 정신, 자가절단,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
호모 데우스

[참고문헌]

- 신용수 (2021.2.18.). ‘코로나 블루’ 1년, 우리는 어떻게 ‘멘탈’을 잡아야 하는가. PharmNews.
출처: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68>.
- 윤병기 (2021.05.12.). 청년층이 잘 빠지는 ‘우울의 늪, 코로나 블루’. 厚生新報
출처: <http://www.whosaeng.com/127051>.
- 이지혜 (2021.5.18.). 36.8% ‘코로나 블루’ 호소.. OECD 중 한국이 최다.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5688.html.
- 최유미 (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서울: 도서출판 b.
- 포크포크 (2017.08.16.). 늑대 14마리 공원에 풀어놓자 나타난 기적같은 변화.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hRAZnsR_iI. 접속일 2021년6월3일.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ennett, J.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erardi, F. B. (2009). Precarious Rhasody: Semiocapitalism and the Pathologies of the Post-Alpha Generation. 정유리 옮김 (2013a).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기호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정신노동의 정신병리. 서울: 도서출판 난장.
- Berardi, F. B. (2011). After the Future. 강서진 옮김 (2013b). 미래 이후. 서울: 난장.
- Berardi, F. B. (2015). Heroes: Mass Murder and Suicide. 송섭별 옮김 (2016). 죽음의 스펙터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범죄, 자살, 광기. 서울: 반비.
- Chalmers, D. (2011). Foreword in Clark, Andy. Supersizing the Mind: Embodiment, Action, and Cognitive Exten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A. (1997). Being There: Putting Brain, Body, and the World Together Again.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lark, A. (2003). Natural-Born Cyborgs: Minds, Technologies, and the Future of Human Intellig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A. (2011). Supersizing the Mind: Embodiment, Action, and Cognitive Exten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A. and Chalmers, D. (1998). The extended mind, Analysis. vol.58, no.1, 7-19.
- Deleuze, G. & Guattari, F. (1994). What is Philosophy? trans. H. Tomlinson and G.

- Burchel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ari, Y. N. (2015).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Vintage Publishing.
- Haraway, D. (2004). *The Haraway Reader*. London: Routledge.
- Haraway, D. (2016a).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araway, D. (2016b). *Manifestly Haraway*. 황희선 옮김 (2019). *해러웨이 선언문*. 서울: 책세상.
- Hoffmeyer, J. (2008). *Biosemiotics: In Examination into the Signs of Life and the Life of Signs*. trans. Jesper Hoffmeyer and Donald Favareau. ed. Donald Favareau. Scranton and London: University of Scranton Press.
- Linás, R.R. (2002). *I of the Vortex: From Neurons to Self*. 김미선 옮김 (2008). *꿈꾸는 기계의 진화: 뇌과학으로 보는 철학명제*. 2쇄. 서울: 북센스.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ed. by Gordon, W.T. (2003). 김상호 옮김 (2011).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chneider, J. (2005). *Donna Haraway: Live Theory*. New York: Continuum.
- Sober, E. and Wilson, D. S. (1999). *Unto Others: The Evolution of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ehead, A. N. (1985). *Process and Reality: An Essay in Cosmology*, Gifford Lecture Delivered in the University of Edinburgh During the Session 1927-28. Corrected Edition by D. R. Griffin and 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국문초록]

본고는 미디어를 인간의 연장으로 보았던 마셜 맥루한과 인간을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로 보면서, 이를 연장된 마음 개념으로 재구성하였던 앤디 클라크의 ‘연장’에 대한 관점들을 통해 팬더믹 이후 초래될 포스트휴먼 시대를 미리 서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연장이 초래할 문제들을 크게 자가절단과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로 진단하며, 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미디어를 통해 외부세계로 더욱 넓게 연장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고, 이러한 연장은 중추신경계에 스트레스와 긴장을 야기하면서 자가절단을 수행하게 만드는데, 프랑코 베라르디는 이를 감성과 감수성의 분극화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증상으로 진단한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만남을 대치하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접속으로 대치되고, 그래서 타자에 대한 정보처리 기능은 원활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감은 매우 둔해진다. 자연스레 SNS나 인터넷 댓글에는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공격적 언사들이 난무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첨단 미디어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온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연장된 마음 개념을 통해 인간과 기계가 혼종적 존재를 구성하며 사이보그적 실재를 현실화하는 시대를 그저 개념적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단조롭게 넘어가던 클라크의 서술이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근원에는 팬더믹 이전부터 사람들 간의 격차를 부채질하고 있었던 슈퍼스타 경제, 즉 불평등의 업그레이드라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스템이 놓여 있음을 클라크는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개념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나 ‘연장된 정신’이 아니라 생명의 ‘공산’이어야 할 것이다. 즉 생명은 개체들 간의 생존경쟁이 아니라 함께 얽힌 공생의 공산인 것이다.

[Abstract]

The Extended Human Being, The Extended Problems: The Issue of the Extended Human Being over the Digital Network in the Pandemic

Park, Iljoo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anticipates a posthuman reality after this covid-19 pandemic, dealing with Marshall McLuhan's concept of media as the extensions of Man and Andy Clark's concept of humans as natural-born cyborgs. The latter proposes the concept of the extended mind. This article especially explores the concept of extension in McLuhan and Clark. The extension of human being will cause some serious changes with problems, and they can be summarized into autoamputation and the polarization of sensitivity and sensibility. This is an attempt to find an alternative or solution to them. The brilliant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made humans to extend via technological media over the external world, and it causes the central nerve system (CNS) stress and tension. The unbearable stress and tension have CNS perform autoamputation. Franco Berardi dignozes it very serious in the context of the polarization of sensitivity and sensibility. In our pandemic actuality, in which people replace meeting with digital network, that is, contact with connect, people are still processing well information via network without any trouble, but they lack sympathy or empathy in their encounter with the other. Naturally, social media and internet are full of inhuman, unethical, and aggressive responses and replies, and these new technologies further are turning into a hotbed of fake news. These are not what Clark never anticipates or perceives in his philosophical descriptions of human-machine hybrids and cybernetic reality, because he was just focusing on a conceptual change in philosophy. One should not miss the fact that there lies behind this actuality the so-called superstar economy, which has accelerated the gap between the have and the have-not, even before the pandemic. It is none other than upgrading inequality by the system of infinite competition and winner-take-it-all. This is what Clark misses in his reflection on the extended mind. If we need a conceptual change in order to overcome

this actuality, it is not natural-born cyborg' or extended mind but sympoiesis of life. Life is not the struggle for existence but the sympoiesis of symbiosis entangled together.

【Keywords】 Media as the extensions of humans, the extended mind, autoamputation, the polarization of sensitivity and sensibility, homo deus

논문투고일: 2021년 7월 19일 / 논문심사일: 2021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1일

【저자연락처】 iljoon85@gmail.com